지역본부 모델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지역본부의 기능

지역본부는 그룹의 글로벌 본사와 개별 국가의 운영 자회사 사이에 위치합니다. 지역본부는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자본을 배분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조달과 물류를 조율하며, 컴플라이언스를 감독합니다. 또한 각국 법인에 회계, 인사, 정보기술 등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룹에서는 지역본부가 각국 법인의 주식도 보유하므로, 지역본부가 그 지역의 지주회사가 됩니다.

2006년 6월 정부가 여러 기업에 본부상(headquarters awards)을 수여할 때 이러한 기능을 설명한 표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본부는 전략적 통제, 의사결정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다수는 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글로벌 표준 설정과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도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1] 이 정의는 이하의 논의에서 중요합니다. 지역본부는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지역의 이익이 계상되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정책의 기원

제C편 제III장에서 살펴본, 1961년 8월 1일 설립된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은 1980년대 중반의 경기침체로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후 본부 기능의 유치에 나섰습니다.[2] 1986년에 도입된 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인센티브는 지역 사무소가 역내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적격 서비스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3] 2003년 EDB는 15%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인정과 국제본부(International Headquarters) 인정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4] 그 혜택은 기능의 범위와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고위 인력의 수에 따라 차등화되었습니다. 본부 인정 제도는 이후 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로 통합되었습니다.[5]

이 전략은 수량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06년 싱가포르에 있던 약 7,000개 다국적 기업 중 60% 이상이 지역 또는 글로벌 운영을 위한 본부 기능을 설치하였습니다. EDB는 201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역본부 및 국제본부 500개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약 385개 기업이 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6] 이 수치는 본부 정책이 20년 전에 이미 성숙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업을 하나하나 선별하고 각 기업과 인센티브를 협상하는 그 방식도 보여줍니다.

지역본부는 몇 개인가

지역본부라는 용어는 인센티브 제도 밖에서는 법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지역본부의 수를 집계하는 공식 등록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수치는 2019년 EY의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싱가포르에 약 4,200개의 지역본부가 있다고 추산하였습니다. EDB도 자체 간행물에서 이 수치를 사용해 왔습니다.[7] EDB의 최근 발표는 다른 척도를 사용합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싱가포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완료된 지역본부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8] EDB는 또한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본부 소재지로 소개합니다.[9]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두 척도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본부 수에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온 사무소가 포함됩니다. 완료된 프로젝트 수는 일정 기간 내의 신규 진출과 확장을 측정합니다. 어느 수치도 이들 사무소에서 일하는 인원이나 이들이 계상하는 지역 이익의 규모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규모는 분명합니다. 수천 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EDB가 싱가포르의 매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드는 아마존(Amazon), 3M, 다이슨(Dyson) 및 유니레버(Unilever)의 사무소가 포함됩니다.[10]

왜 싱가포르인가

경영진 대상 설문조사와 공식 발표는 대체로 같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연결성입니다. EDB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약 100개 항공사를 통해 170개 이상의 도시와 연결되어 있어, 지역 관리자가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수도를 당일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11] 둘째는 인재입니다. 지역본부에는 여러 나라와 언어를 넘나들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영어로 교육받은 현지 인력과, 제J편 제IV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외국 전문가를 받아들이는 출입국 제도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는 법적 확실성입니다.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지역 자회사를 보유하는 그룹은 영국법에 기초한 법을 영어로 적용하는 법원과 중재기관에 의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제F편의 주제입니다.

넷째 이유는 세제입니다. 싱가포르는 과세소득의 17%라는 단일 세율로 회사에 과세하며, 이 세율은 내국 회사와 외국 회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12]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13] 많은 본부는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경감세율의 혜택도 누렸습니다. 다섯째 이유는 덜 가시적입니다. 싱가포르는 안정적이고 깨끗하며 안전한 곳으로 인식됩니다. 202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싱가포르는 84점으로 182개국 중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14] 점수가 훨씬 낮은 나라들에서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회사에게, 청렴성에 대한 평판이 높은 관할권에 지역 경영 거점을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위험관리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글로벌 최저한세와 세율 경쟁의 종언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본부 모델의 경제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1년 10월 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의 136개 회원은 두 개의 필라(pillar)로 구성된 해법에 관한 성명을 승인하였으며, 그 중 필라 2는 대규모 다국적 그룹에 대해 15%의 최저 유효세율을 정합니다. 이후 한 회원이 추가로 합류하여 승인한 관할권은 137개가 되었습니다.[15]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룹에 대한 소득산입규칙과, 15%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국내에서 징수하는 국내 추가세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16]

대규모 그룹의 경우 국내 추가세는 15% 미만의 경감세율을 무력화합니다. 싱가포르가 그 차액을 직접 징수하므로, 그룹은 이익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얻는 것이 없고 싱가포르에 두어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새 규칙에서 보다 유리하게 취급되는 인센티브로 대응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예산안에서 발표된 환급형 투자세액공제(Refundable Investment Credit)는 신규 활동에 대한 적격 지출을 지원하며, 일정 기간 내에 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17] 미국에 본사를 둔 그룹을 이 체제의 일부에서 면제하는 2026년 1월의 합의는 불확실성을 더하였습니다. 미국 그룹이 싱가포르 지역본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효과는 분명합니다. 본부 소재지 간의 경쟁은 세율에서 인재, 인프라, 규제 및 보조금으로 옮겨갔습니다.

주

1. Lee Yi Shyan, Minister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speech at the EDB Combined Headquarters Award Ceremony, The Arts House, 2006년 6월 1일 (옛 통상산업부인 에너지통상산업부 웹사이트에 보관): 본부는 전략적 통제, 의사결정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다수는 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및 글로벌 표준 설정과 같은 “higher value-added activities”도 수행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Wikipedia, “Economic Development Board”(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조례는 1961년 8월 1일 시행되어 Singapore Industrial Promotion Board의 기능을 인수함; 기관은 1961년 8월 1일 설립됨. ↩

3. 운영본부(OHQ) 인센티브는 통상 1986년에 도입된 것으로 보며, 적격 본부 소득에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당시 시행되던 Income Tax Act, s. 43E). 반면 *The Nation*(방콕), “How Singapore's incentives for headquarters evolved”, 2015년 4월 24일(nationthailand.com,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은 이 인센티브가 “first brought in around late 1992”라고 기술함. ↩

4. *The Nation*(방콕), “How Singapore's incentives for headquarters evolved”, 2015년 4월 24일(nationthailand.com,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OHQ 인센티브에는 “a 10-per-cent rate of tax on qualifying fee income”이 적용됨; 2003년 EDB는 “15-per-cent tax rate on qualifying income”이 적용되는 지역본부(RHQ) 인센티브와 국제본부(IHQ) 인센티브를 도입함. ↩

5. RHQ 및 IHQ 인정의 차등적 요건과 이후 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로의 통합: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ct 1967. ↩

6. Lee Yi Shyan, 2006년 6월 1일 연설, 앞의 자료: 싱가포르의 다국적 기업 7,000개 중 “more than 60%”가 지역 또는 글로벌 운영을 관리하는 본부를 설치함; 2010년까지 “attract 500 world-class regional and international headquarters”라는 EDB의 목표; 약 385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 시상식에서 8개 기업이 상을 받음. ↩

7.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Futuristic workspace: Singapore a hub for corporate headquarters”, 2022년 4월 18일(edb.gov.sg): 2019년 EY 연구를 인용하여 “the city-state is home to about 4,200 regional headquarters”. ↩

8.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Scale across Southeast Asia”(edb.gov.sg):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싱가포르는 “the highest number of completed regional HQs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기록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9.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Headquarters”(edb.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 most popular regional headquarter destination in Asia”. ↩
10.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Headquarters”(edb.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Amazon, Dyson 및 Unilever가 싱가포르에 글로벌 또는 지역 허브를 두고 있음; Amazon과 3M이 지역본부를 둔 기업으로 언급됨; 뉴스 기사 “FedEx primes for growth with new regional headquarters in Singapore”, 2024년 2월 27일. ↩
11.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Headquarters”, 앞의 자료: 싱가포르는 “over 170 cities via 100 airlines”와 연결됨; 2025년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1위. ↩
12.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ir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회사는 “taxed at a flat rate of 17% of its chargeable income”; 2026 과세연도(YA 2026)에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며, 2,000싱가포르달러의 CIT Rebate Cash Grant를 포함한 총 혜택 상한은 4만 싱가포르달러임. ↩
13. Income Tax Act 1947, s. 13(8)~13(12): 외국 배당을 포함한 특정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 관할권에서 15% 이상의 세율로 과세되었고 세무국장(Comptroller)이 면제가 거주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됨; 현행 요건은 법률과 국세청(IRAS) 지침에서 확인할 것. ↩
14. Wikipedia,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6년 2월 발표된 2025년 지수 표: 싱가포르 84점, 182개국 중 3위. ↩
15. Wikipedi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37 countries in total have approved it”, 2021년 10월 8일 기준 상황에 관하여 특히 Osler, “136 countries agree to OECD/G20 Inclusive Framework's two-pillar solution to international tax reform”, 2021년 10월 12일 인용; 최저세율 15% 이상; 싱가포르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기재됨; 2026년 1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월 포괄적 이행체계의 147개 회원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의 최저한세만 적용받는 "side-by-side arrangement"에 합의함. ↩

16.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 연결 매출액이 연간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그룹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산입규칙과 국내 추가세를 시행함; Singapore Statutes Online에서 법률을 확인할 것. ↩

17. Budget Statement 2024(2024년 2월 16일): 적격 지출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환급형 투자세액공제로, 법인세와 상계하고 미사용 공제액은 4년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함; mof.gov.sg의 예산 연설문과 EDB 제도 지침을 확인할 것.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